



종란수출국의 과열경쟁

네덜란드의 종란과 종계 수출업자들은 서독과 프랑스를 수출 경쟁국으로 만들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산 종계나 종란을 생산 수출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료값이 저렴하여도 큰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종란은 가격면에서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터키의 등장으로 중동시장과 이라크에서 종란수출경쟁이 불이 붙을 전망이다.

87년 3월까지 네덜란드와 서독의 종란수출은 26%가 줄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48%와 42%가 하락했다. (P.I.9)

개발도상국 계란생산 증가추세

국제연합 FAO의 추정에 의하면 금년도 세계 계란생산은 전년보다 2.2% 증가하여 기록적인 수준인 3,250만톤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와같은 증가는 선진국에서 2.4%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5.0%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986년도 세계 계란생산성은 1985년보다 2.4% 증가한 바 있다. 이 기간중 선진국의 계란생산은 미국과 EC는 약간 증가하는데 그치고 동유럽국가는 2.5%감소하였으나 소련의 생산이 거의 4% 늘어남으로써 전체적으로 1.1%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계란생산 증가는 80

년대 들어 가장 높은것으로 주로 집단농장의 생산증대에 의한 것이며 민간 소유분의 생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도상국의 1986년 계란생산은 전년보다 4.5%증가했다. 이는 1948~1985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과 같은 수준이나 지난 10년동안으로 보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한편 1986년도 세계 계란 및 난 가공품 교역량은 91만톤에 달했다. 이는 1985년 보다 4% 증가한 것이나 사상최대였던 1984년 보다는 4%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특히 동유럽의 수출이 감소되었다.

News Letter. 11

세계 양계업은 지금...

- 편 집 부 -

지난해 미국인들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 59.9파운드(27.2kg)에 달해

미국인들의 쇠고기 소비량이 늘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돼지고기 및 닭고기류의 소비량 역시 쇠고기 못지않게 상당히 높다.

미농무성의 지난 4월21일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인들의 1인당 평균 쇠고기섭취량은 80.6파운드였는데 비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58.6파운드, 닭고기 59.9파운드, 칠면조고기 13.5파운드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 수치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쇠고기 이외의 이들 육류의 1인당 소

비량은 132파운드로 쇠고기 소비량의 1.6배에 달하고 있다.

Soy Bulletin, 87.7

세계축산학회 헬싱키대회

88년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6차 세계축산학회가 열린다. 제3차 AAAP대회는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어 한국 축산업을 세계여러나라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었다.

이번 6차 세계축산학회에서 국내에서 다음에 열릴 제7차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할 계획을 세워 대표단을 대거 참석시킬 예정에 있다.

이대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금을 한국축

산학회 국제학술협력위원회로 88년 1월20일까지 우송하면 된다.

아시아국가 계란 자급도 증가

1990년대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계란생산이 80년대 즉 79~81년 사이보다 평균 67%나 증가한 1,27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양은 달걀소비증가량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양인데 최근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동아시아국가들이 자급도를 높이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중 인도네시아는 125%, 파키스탄이 213%, 대만이 102%, 태국 이 218%의 신장을 보일 전망이다. (P.I)